

인권정보자료실
NSL1.73

국가보안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문제 해결 촉구,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단 관련 자료: 2000-2001

인권 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단

제 목 :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 취재 요청

문의처 :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 박래군(016-729-5363, 741-5363)

민가협 총무 남규선(017-238-3300, 763-2606)

국가보안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문제 해결 촉구, 인권활동가 16명 단식 농성!

단식농성 기자회견

· 일시: 2000년 12월 2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

1. 인권단체 활동가 16명은 2000. 12. 28.(목)부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20세기를 보내고 바야흐로 21세기를 맞게 되는 지금 인권 활동가들은 노상에서 단식농성을 감행하려 합니다. 인권 2대 현안인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혁입법이 해를 넘기고 아예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혹한의 추위에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전세기를 향해, 했던 약속은 유지조각이 되어 가고 있으며 16대 첫 국회가 오욕과 절망으로 끝나가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우리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타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유엔인권이 사회의 권고대로 국가보안법의 7조(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의 완전 삭제와 국가보안법의 폐지,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합니다. 인권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해 연발연시를, 연휴를, 21세기를, 노상에서 단식농성을 하며 맞는 현실은 이 혹한의 추위보다 더한 엄혹한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단식농성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9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3. 국가보안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문제 해결 촉구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개요

· 단식농성 기간 : 2000년 12월 28일부터 2001년 1월 9일까지(13일간)

·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

· 단식농성 참가자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송원찬(다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16명 (끝)

국가보안법 폐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 취지와 기본계획

1. 단식농성 준비 경과

- 12월 8일 세계인권선언 52주년을 맞아 19개 인권단체들은 “정부는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제하의 공동성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함. 이 공동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 제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연내에 반드시 해결하라”며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함. 아울러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저항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

- 12월 14일 “2대 인권 현안 연내 해결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성명서”를 인권시민사회단체 원로 대표자 회의 명의로 발표함

- 12월 18일 인권활동가 16명은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선언함. 그러나, 당시 한국통신노조의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19일 하루만에 단식농성을 중단함.

- 12월 25일을 전후하여 개혁입법의 연내 추진을 포기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언론에 보도됨.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다시 단식농성을 갖기로 합의, 28일부터 1월 9일 임시국회 폐회일까지 단식농성을 명동성당에서 갖게 됨.

- 이번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은 199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법무부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항의하여 1주일간 명동성당에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을 전개하여 정부안의 국회 심의를 저지시킨 행동을 잇는 의미도 있음.

2. 단식농성의 목적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률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 여야 의원들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두 법률에 대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 민주당이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위상을 수용하면서도 그 내용면에서는 실질적인 지위와 권한이 매우 약한 약체 인권위안을 논의하다 중단된 상태임.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도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은 존속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다가 논의를 중단한 상태임. 김대통령은 이들 법률들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언급을 회피하고 있음.

-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의마저 봉쇄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이회창 총재는 국가보안법 개폐 불가에 대한 입장을 최근 확실히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2대 인권현안에 대한 정치권이 민간단체안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들 인권 2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 약속과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아울러 정치권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국제인권기준을 훼손하는 식의 논란을 벌이는 일은 용납할 수 없으며, 특히 수구세력을 대표하는 법무부(검찰)가 주요 인권현안의 추진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가 없음.

- 인권활동가들은 단식농성을 통해 국내외에 2대 인권현안의 추진이 중단된 상황을 알려 낼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외 압력을 증대시킬 것임.

- 또한, 부정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제 사회세력과 연대하고,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임. 우리의 요구가 무시될 경우 제 사회세력과 연대하여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

3. 단식농성 계획

- 인권활동가들은 28일 오전 11시부터 2001년 1월 9일(12박 13일) 임시국회 폐회 일까지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할 것임. 현재 농성대오 중 쓰러지는 경우는 다른 활동가들로 대체하면서 농성 대오를 유지할 것임.

- 단식농성 참가자들은 매일 낮 시간 동안에는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에서 연좌농성을 기본으로 대오를 유지, 엄동설한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것임.

- 매일 오후 6시 집회를 갖고 촛불시위를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것임. 단식농성을 중심으로 각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압력을 증대시킬 것임.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8일부터 매일 오후 2시와 8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지 집회를 갖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할 것임.

- 인권활동가들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단식농성을 알리고,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를 호소할 것임.

- 12월 29일(금) 오전 10시에는 각계 사회단체 대표들이 단식농성지지 기자회견을 명동성당에서 갖고 민주당사를 향의 방문할 것임.

- 12월 31일(일) 오후 9시에는 명동성당 단식농성장에서 제 사회단체들이 집결하여 집회를 가진 후 제야의 종을 타종하는 보신각까지 평화적이고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촛불행진을 전개할 것임.

4. 우리의 요구

-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내려라!
- 여야는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 2대 법률의 조속한 개폐, 제정에 앞장서라!
- 여야는 부정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의 제정에 즉각 나서라!
- 법무부(검찰)는 인권단체를 우롱하지 말고, 개혁입법 논의에서 손을 떼라!
- 민중생존권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성명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겨울의 한 복판,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노상단식농성을 결행한다.

인권 2대 현안인 국가보안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해 부정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이 해를 넘기고 아예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에서는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폭력을 동원하여 진압하기 일췌이며, 대통령은 이들의 외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진압을 지시하고 있다. 그 많은 개혁의 약속들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과거 독재자의 추악한 모습을 닮아 가는 김대중대통령에 우리는 최후의 통첩을 보내기 위해 혹한기 단식농성을 결행한다.

이제 어떤 약속도 믿지 않는다. 지난 3년간 국민의 정부를 자처한 김대중 정부가 외쳐왔던 그 많은 약속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오로지 개혁의 이름 아래 자행된 초국적 자본과 독점자본의 이해만 대변하고 민중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몬 구조조정밖에 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에는 웃목까지 고무 따스하게 만들겠다고 허울좋은 약속도, 인권지도자로 기억되고 싶었던 바람도 실천의지를 담보하지 못한 거짓이었음이 그 바닥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의 노상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 공공연히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인권원칙을 부정하는 정치세력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어떤 행동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인권의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결연히 맞설 것이다. 우리의 혹한기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권 퇴진 투쟁밖에 달리 길이 없다. 이것은 우리 인권활동가들이 김 대통령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결단하라.

기만적인 약속과 번복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두 인권관련 법률에 대한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은 지 오래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여당이나 되도 않을 반대를 일삼는 야당이나 역사 앞에 죄를 짓기는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세기에 걸친 인권유린을 끝내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조치이다. 그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인권과 남북화해를 얘기할 수 없다.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를, 인권활동가들의 갖은 노력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절규를 그냥 묻어두고 가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인권유린의 대명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조건이 김대중 정권에서만큼 무르익은 적은 없었다. 그 절호의 기회를 논란으로 허비해 버린 김대중 정권의 과오는 더욱 씻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유엔인권이사회의 의 권고대로 국가보안법의 7조(이적단체 구성, 가입)의 완전 삭제를 포함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결연히 나서라.

우리가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지위를 확보하여 각종 인권침해를 직접 조사하고 시정 명령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이다. 그런 인권기구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인권위를 주무르려 하는 법무부의 야욕과 투정을 현 정권이 용납했기 때문이다. 인권활동

That fits to
Share with You

OhmyNews

2000.12.30. 토요일

사회



사회	문화	정치	국제	교육	경제	스포츠	정보통신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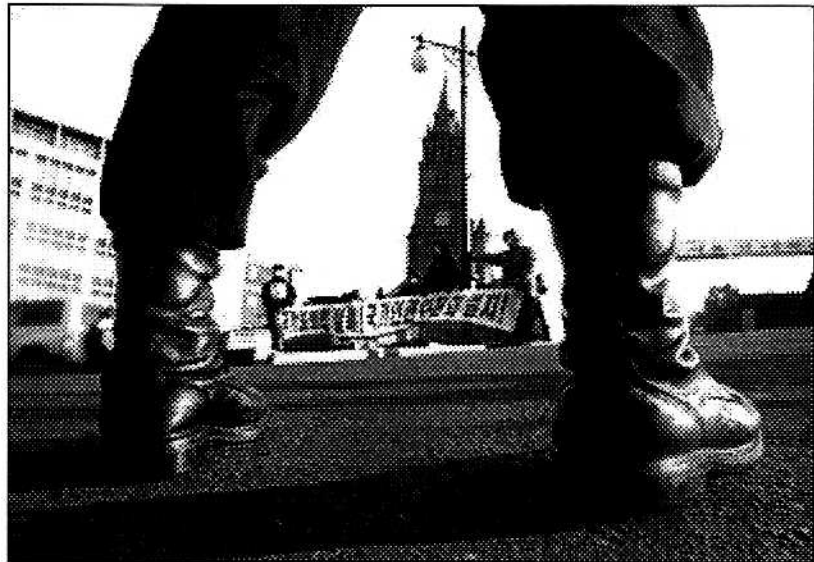
- ① 회원가입
- ② 기사쓰기
- ③ 기사제보
- ④ 기사검색
- ⑤ 전체기사

- 이 기사를 메일로
- 이 기사를 프린트
- 이 기사에 관한 의견
- 이전 메뉴

2000년 끝자락의 목숨건 단식농성

'인권대통령'에게 보내는 인권활동가들의 '최후통첩'

노순택/김미선 기자 nohst@ohmynews.com



▲ 명동성당이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한 상태에서 인권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성당 들머리에서 천막도 치지 못한 채 목숨 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오마이뉴스 노순택

목숨을 위협하는 군사독재의 갖은 핏박을 이겨내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던 김대중 대통령. 마침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것도 노벨상 중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평화상'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계 유수의 언론매체들이 그를 '올해를 빛낸 인물'로 앞다투어 선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권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인권상황을 얼마나 개선시켰을까.

여기 2000년 세밑 세 가지의 인권풍경이 있다.

장면 하나 : 명동성당 들머리 길바닥에 주저앉은 인권활동가들 - 공희정/노순택 기자

<2신>12월 29일 오후 10시, 인권운동가들이 김 대통령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

"우리의 촉한기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권 퇴진 투쟁밖

에 달리 길이 없다. 이것은 우리 인권활동가들이 김 대통령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다."

겨울의 한 복판, 인권운동가 14인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외치며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에서 단식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단식연좌농성 이외에도 28일부터 매일 오후 2시와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지 집회를 갖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오늘 오후 8시부터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회원 70여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를 진행했다.

연좌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정책기획실장은

김대통령에게 "인권활동가들이 목숨을 건 한겨울 단식농성에 나서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무시될 경우 제 사회세력과 연대하여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12박 13일간의 고행은 더욱 더 고될 것으로 보인다. 명동성당 측이 아직도 천막농성을 허락하지 않아 길거리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위 첫날인 28일도 천막도 치지 못한 채 노상에서 밤을 지새웠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단식농성을 중심으로 각 시민사회단체의 연대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압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며, 12월 31일 오후 9시에는 명동성당 단식농성장에서 제 사회단체들이 집결하여 집회를 가진 후 제야의 종을 타종하는 보신각까지 촛불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음은 현재 단식연좌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정책기획실장, 인권하루소식 이창조 편집장, 인권하루소식 유해정 총무, 심태섭(자유권위원회), 김석한(울산인권운동연대), 최연희(새사회연대), 송원찬(다산인권센터), 문만식, 김영옥(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박철우(국제민주연대), 박성희(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정은성(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 관련 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즐기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3대 개혁입법'관련 현재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률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 여야 의원들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기는 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아직 두 법률에 대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 민주당이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위상을 수용하면서도 그 내용 면에서는 실질적인 지위와 권한이 매우 약한 약체 인권위안을 논의하다 중단된 상태이다.



© 오마이뉴스 노순택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도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은 존속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다가 논의를 중단한 상태이고, 김대통령도 이들 법률들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의마저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국가보안법 개폐 불가에 대한 입장을 최근 확실히 밝힌 바 있어 국회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1신>12월 2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앞 차디찬 바닥에 눌러앉은 사람들이 있다.

민가협과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국내 대표적인 인권단체 활동가 16명. 이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문제를 연내에 해결하라"며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2001년 1월 9일까지 쓰러지더라도 단식연좌농성을 계속 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한 현대의 악법을 존속시키는 정치권은 반성하라"고 주장했다.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12박 13일의 고행길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천막조차도 치지 못했다.

이번 농성은 한국통신 노조의 '쓰레기 방치' 사건이후 명동성당에서의 첫 번째 농성. 명동성당측은 "더이상의 집회와 농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성단 대표가 명동성당 관계자를 만나려 했지만, 이도 거절당했다. 명동성당측은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해 놓은 상태. 더구나 금융노조 파업과 시기가 겹쳐 명동성당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경찰병력이 한층 보강됐다.

"명동성당측과 마찰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천막을 치고 싶지는 않다"며 차가운 맨바닥에 꾸그려 앉은 이들.

땅거미가 깔리면서 동장군의 기세가 이들의 맨얼굴을 파고 든다.

That Fits to
Share with You

OhmyNews

2001.1.8. 월요일

사회



사회	문화	정치	국제	교육	경제	스포츠	정보통신
----	----	----	----	----	----	-----	------

- 회원가입
- 기사쓰기
- 기사제보
- 기사검색
- 전체기사

- 이 기사를 메일로
- 이 기사를 프린트
- 이 기사에 관한 의견
- 이전 메뉴

줄 잇는 농성단과 촛불 음악회

유해정 기자 humanrights@sarangbang.or.kr



© 오마이뉴스 노경진

관련기사

- [미국에서 단식농성단에게 보내온 편지 - 범기영 기자](#)
- [민중가수들, 농성장서 콘서트 갖기로 - 서정민갑 기자](#)
- [인권단체 대표자들 민주당 대표 면담 무산 - 이민우 기자](#)

1월 6일 오후 9시: 농성단에 모여든 민중가수들-노경진 기자

1월 6일 밤 명동성당 앞에서 '촛불음악회'가 열렸다. 단식농성 10일 째를 맞는 인권운동가들을 위한 민중 가수들의 노래 선물이다.

이번 공연은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촛불집회를 보다 의미있게 해보자는 농성단과 인권단체들의 고민에서 제안됐다. 농성단은 곧바로 평소 국보법 철폐에 뜻을 함께 해 오던 민중 가수들에게 출연을 요청했다. 이번 공연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민중가수들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 참가하는 팀은 모두 여섯. 꽃다지, 우리나라, 박준, 손병휘, 최도은, 조국과 청춘이 그들이다. 일정 탓에 이번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치환, 정태춘 씨도 "함께 무대에 오르고 싶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공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 관계자가 귀띔했다.

민음협의 관계자는 또 "국보법 철폐 단식 농성에 뜻을 같이 한다"며, "우리가 가진 재산은 노래뿐이니 노래로라도 농성단에게 힘을 북돋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시간 여의 길지 않은 공연이지만 농성단의 마음은 들떠 있다. 평소 사회단체들이 지지방문을 왔을 때에도 "우리는 노래를 먹고살아요"라며 노래를 요청해왔던 농성단은 "이번 공연이 명동성당을 찾



© 김가연

는 신도들과 시민들이 이번 농성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5일 탈수증세로 카톨릭회관에 누워있었던 유가협 오영자 씨는 오늘 오전 다시 농성장으로 나왔다. 60세라는 고령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극구 말렸지만 "괜찮다"며 한사코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역시 지난 5일 고혈압과 심장 통증으로 사당의원으로 이송된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씨도 상태가 호전됐다고 농성단은 전했다.

오늘 오전 다산인권센터의 송주현 씨가 농성에 합류했고, 자통협 의 박석분 총무국장이 오늘의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 지난밤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성유보 이사장도 단식농성을 함께 했다. 전국연합 이천재 공동의장은 일정으로 오늘 오전 농성장을 떠났지만 노수희 공동의장은 현재도 농성단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1월 5일 오후 7시50분:"인권운동가로서 부끄럽고 절박하다"-노경진 기자

단식 9일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여전히 목숨을 건 '우리시대 인권 선언'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단식농성단 상황실장인 박래군 씨(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가 1월 5일 오후 3시 35분 혈압 상승과 심장통증 등의 증상을 보여 사당의원으로 긴급이송됐고, 유가협 오영자 씨(87년 분신한 고 박선영의 어머니)는 현재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링겔을 꿋고 누워있다.

이같은 극한 상황에서의 단식농성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늘었고, 이에 대한 지지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1월 4일부터 7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만류를 뿌리친 채 전국연합 이천재 공동의장이 단식에 들어갔다. 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 역시 이에 합류했다. 또 노동인권회관 박석운 소장, 유가협 장남수 수도권 지회장 등도 5일부터 단식농성에 동참했다.



▲전국연합 이천재 공동의장
© 오마이뉴스 노경진

참여연대는 4일 차병직 협동처장(변호사)으로 시작해 8일 박원순 사무처장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추모단체연대회의(구선주), 자통협(김판태)도 이날부터 이에 동참하고 있다.

4일 밤에는 한 택시운전사가 이불 한 채를 농성단에 건네주며 "승객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겠다"고 말한 뒤 선전물을 받아갔고, 5일 낮에는 울산에서 올라온 한 시민이 "오늘 하루저녁만이라도 함께하고 싶다"며 농성 대열에 류했다.

또 5일 낮에도 민언련, 여성의 전화, 소파개정국민행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단체 지지방문은 계속됐다.

한편 3일 저녁 이곳을 방문한 문정현 신부는 명동성당 백남용 주임신부에게 부탁해 방하나를 구했으며, 이곳에서 이천재 의장과 병원으로 이송된 박래군 상황실장 등이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도 단식농성에 많은 이들이 함께했다.
© 오마이뉴스 노경진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는 "안에서 자꾸 사람들 아파서 실려나가는 게 안타깝다"면서도 "단식농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인권법, 국보법 등 3대 개혁법안에 대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인권운동가로서 부끄럽고 뭔가 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였다"며 "의기소침한 운동권 내부에 의지를 북돋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5일 오전 9시 단식농성단 대표들은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면담하려 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무산됐고, 이종걸 의원으로부터 "8일 김중권 대표, 정대철, 이상수 의원과 자리를 주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채 명동성당으로 되돌아왔다. 이날 단식농성단의 청와대 면담 요청은 거절당했다.

현재 단식농성자들의 혈압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기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속보: 1월 5일 오후 6시30분: 농성단 상황실장 쓰러지다-서정민갑 기자

단식농성단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박래군 상황실장(39,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편집장)이 단식 9일째인 오늘(1월 5일) 오후 3시 35분경 혈압 상승과 심장통증 등의 증상을 보여 사당병원으로 긴급이송됐다.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16-18명의 농성자들은 점점 극한의 상황에 처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의 국보법 철폐 등의 요구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

한편 참여연대에서는 1월4일부터 차병직 협동처장(변호사)을 시작으로 1인1일 릴레이로 이 단식에 참여하고 있다. 또 70세의 고령인 이천재 전국연합공동의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일부터 이틀째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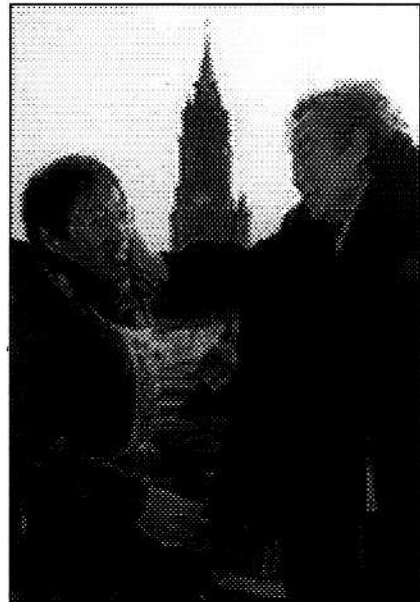
이 칼바람 속 단식은 오는 9일까지 예정되어 있어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한겨울 노상단식은 위험천만하다면서 관련 시민단체와 정부의 시급한 대화채널 가동과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래는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의 일원인 유해정 씨가 쓴 단식농성 일기입니다.--편집자주)

단식 6일째(2001년 1월 2일)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내 뺨이 눈물로 젖었다는 것 이외에는...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천식이 있어 바람부는 날엔 나서지도 못하는데..." 평생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얼굴에 가득 드리운 주름살. 도저히 방구석에 앉아 있을 면목이 없어 서울 상경을 결심했다는 윤한봉 민족미래연구소 소장님은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어느새 윤 소장님의 눈에 고이고야 만 눈물... 내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목구멍 깊은 곳으로부터 잘못된 설움이 복받쳐 올랐다.



▲지난 1월 5일, 9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가들을 방문한 고 문익환 목사 미망인 박용길 장로

© 김가연

단식 6일째. 사람들은 우리들이 그들의 마음을 울린다고 말했지만 아니, 우리 역시 울고 있다.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하고 투쟁하고 있지만 이렇게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퍼, 그들을 울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미워 우리는 매일 눈물을 머금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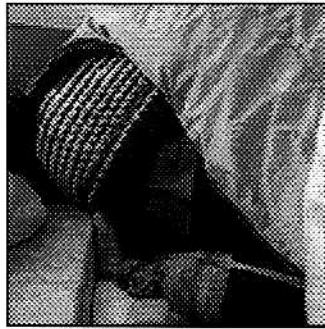
김대통령 앞으로 긴급 면담 요청서/박수원 기자
인권단체 명동성당 단식, 지지 성명 줄이어/이민우 기자
출고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것들/박철우 기자
오마이TV: 단식농성 동영상 보기/이성준 기자

배고픔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긴 할까? 단식이 일주일째 접어들다보니 위장도 지쳤는지 때때로 꼬르륵 소리를 내긴 하지만 음식을 넣어달라는 투정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그럼 힘든 것은?

물론 추위다. 연초에 들어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날씨는 우리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듯 매분마다 우리의 얼굴과 손, 발 그리고 몸을 엄습한다. 천하장사는 없는 듯 했다. 유난히 발과 손이 찬 나는 오늘도 놀림을 각오하고 4켤레의 양말을 얼어버린 듯한 발가락 위로 씌웠다. 얼굴은 눈을 빼곤 모두 목도리와 모자로 둘러쌌다. 목조차 뒤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고 천막을 나서는데 모두 다 한결 같다. 어느새 빼꼼해진 눈. 그게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전부가 되버린 것이다.

단식 7일째(2001년 1월 3일)

세상에 태어나 길거리에서 잠을 청해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루 이틀 술 마시고 뺨은 것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 길거리에 신문지를 덮고 추위를 면해야 했던 이는... 우리는 "그래도 노숙자보단 낫다"며 하루를 연다. 정말



© 김가연

갈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니....

살을 에는 듯한 날씨에 자고 일어나니 물이 다 얼어버렸다. 따스한 물이라도 마셔야 몸이 조금이나 풀릴 듯 한데 온기란 찾아볼 수 없는 천막이라 물을 녹이는 것도 쉽지가 않다. 아침 일찍부터 찾아온 단식단 도우미들이 서둘러 버너를 켜보지만 부탄가스도 얼어버려 부탄가스를 켜는데만 10여분이 걸렸다. 보다가 속이 탄 한 도우미가 서둘러 부탄가스를 사왔다.

"왜 이렇게 생고생들을 하는 거, 정말 가슴아파 못보겠네." 자신이 잘못 살아서 이렇게 어린 활동가들이 이 혹한에 단식농성을 하게 됐다며 지난 1일부터 농성에 합류하고 계신 오영자 어머니(비리재단 축출, 독재타도를 외치다 스스로 목을 맨 서울교대 박선영 열사의 어머니)은 또 다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타이르셨다.

"내가 가서 가스난로 사올께. 그거 쓰자? 응? 이러다 몸이라도 상하면 어쩔라고 그래."

어렵사리 고개를 젓고 마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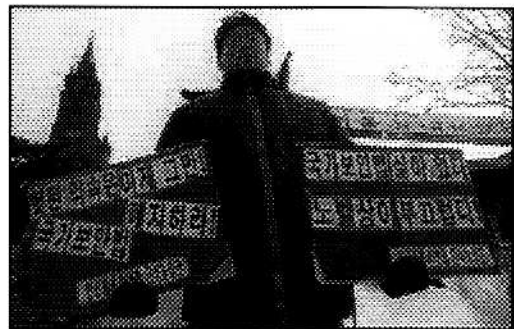
"하이고, 정말 청와대가 우리 얘기들 이려고 있는 거 아는지 몰라..." 매순 안쓰러워 하시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다. 누군가가 일어서서 "어머님 정말 괜찮다니까요"하며 환하게 웃어드리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왜 그렇게 고행을 자처하냐고 묻는다면?

글쎄,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본래부터 우리의 조건이 그러했고 절박한 것이 있었다면 설명이 될까?

손에 뭍 들고 오지 마십시오. 대신 한사람 손을 잡고 오십시오.

우린 "국가보안법 철폐!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며 농성을 고민하면서 명동성당을 우리의 농성지로 선택했다. 아니 별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다. 국회 앞으로, 민주당사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



© 김가연

은 글뚫 같았지만 그곳에서 농성을 보장받는 것은 국가보안법 철폐가 이뤄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니 우리의 선택지는 명동성당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하지만 명동성당측은 한통파업 이후 시설물보호요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우리는 쫓겨날 각오와 노상에서 단식농성을 할 각오를 하며 성당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천막을 치거나해서 성당측을 자극할 생각은 없었다. 성당측을 자극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 사안을 흐려 '국가보안법 문제와 인권위원회 문제'를 제대로 알려내는데 큰 장애가 될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우리는 지난 30일 한 차례 성당측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성당측과 일정 정도의 타협으로 현재의 들머리 계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천막을 거부하고 3일간을 들머리 계단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침낭과 비닐을 뒤집어 쓴 채 잠을 청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1일 내린 눈은 천막을 치진 않고 잠을 청하긴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다. 잠잘 때 위에 얹었던 비닐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천막을 쳤다. 명동성당 측과의 마찰이 있기도 했지만 우리로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쳐진 천막은 다음날 탈수증세를 보이고 누워버린 두 명의 단식농성단 때문에 걷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천막 안에서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예상치 못했던 천막을 얻은 우리, 지금 이 정도면 족하다. 매서운 추위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지만 우리에게 절박한 것은 추위를 막아줄 스티로폼과 몸을 녹여줄 난로가 아니다.

혹한기에 노상 단식농성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박하다. 1월과 2월을 넘기면 언제 또 기회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절박함과 처절함이 이곳에서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것이다. 추위에서 몸을 돌보거나 내일의 내음을 생각하게 하는 여유를 잃게 하는 것이다.



© 김가연

다만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만이 지금 우리에게겐 소중한게 느껴질 뿐이다.

우리에게 난로를 가져다 주고 싶은 분들은 몸에서 느낄 수 있는 온기를 나누어주시길, 함께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랄 뿐이다. 우리는 힘내라는 한마디에서 따스함을 느낀다. 얼어버린 듯한 손발을 주르면서도 한명씩 찾아와주는 사람들을 보다보면 추위 정도야 하는 생각에 입을 싸맨 마스크를 열게 된다.

쫓겨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지난 30일인가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민주당 인권위원장)이 농성장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하고 갔다. 올 필요 없다고, 오면 봉변을 당한다고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들이닥친 것이었다. 결국 이종걸 의원은 소금세례를 받고 쫓겨났다.

너무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일이 없는 듯 하다. 정말 너무나한 것은 그들이 아닌가? 52년의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잘 알면서 당정싸움에 휘말려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 변변한 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만든 안이라는 게 법무부의 안보다 더 못하지.... 정말 민주당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서 왜 농성장을 찾아오는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실 역시 마찬가지. 과연 누구의 탓인가? 이렇게 길거리로 우리를 내 몬 것이... 이곳에 찾아올 힘이나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책상에

앉아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 지에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결국 시민사회비서실 관계자는 "당장 가라"는 호통을 듣고서 성단에게 얼굴도 내비치지 못한 채 사라졌다.

농성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너 또 단식이다 뭐다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알아서 해."

나중에 맞난 것을 사달라는 말에 큰 언니가 뭔가 냄새를 맡았는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참 내가 맞난 것 사달라는 말 처음 하나?"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다. 28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연합 단식농성이 시작되던 날, 새벽에서야 짐을 꾸린 나는 부모님께 이러저러한 농성이 있는데 사람들을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집을 빠져나왔다. 계속 불러대는 엄마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지난 30일은 엄마의 생신. 아침 일찍 미역국은 드셨냐고 전화를 하니 엄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못 가서 엄마 미안! 9일날 갈게."

엄마는 졸린 듯한 목소리로 "응"하며 전화를 끊었다. 내가 농성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집으로 달려가 우리 엄마를 껴안는 일이다. 또 가족 얘기가 나오니 코끝이 찡해진다. 역시 나는 어린가 보다.

오늘도 우린 무사하다.

오늘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농성을 찾았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장기수 어르신들, 학생들 게다가 우리의 농성을 보도했던 언론매체 종사자까지... 그들의 방문을 받으며 우리는 잠시나마 행복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들의 방문이 우리가 막하고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국보법 투쟁과 국가인권위원회 설치투쟁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이 밤(1월 3일)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농성 8일째가 시작되는 것이다. 내일은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으로 하루의 농성을 점으며 진흙같은 하늘에 뜬 별을 보며 소원을 빌어본다. 내일 역시 모두들 일어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투쟁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길.



© 김가연

2001/01/08 오후 12:0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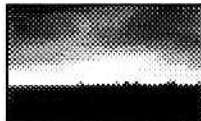
© 2001 OhmyNews

유해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이어진 이전 기사

좋은 기사! 나도 원고료를 주고 싶다!

아래 광고를 클릭해 주세요. 1회 클릭할 때마다 50원의 보너스 원고료가 기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생나무기사는 광고를 클릭해도 보너스 원고료에 합산되지 않습니다.(한 기사당 독자별 1회 클릭에 한함)



알로에농장 세계 1등

※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 107. 좋은 하루... 어제!!
국회의원, 2001/01/08 오후 2:00:16
- 106. 약은 약사에게.....
백두산1호, 2001/01/08 오후 1:52:39
- 105. 약삭빠른 국민성
killer, 2001/01/08 오후 1:38:40

[전체 독자 의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의견 쓰기](#)

[◀ back](#)

[top ▲](#)

[사회](#) | [문화](#) | [정치](#) | [국제](#) | [교육](#) | [경제](#) | [스포츠](#) | [정보](#)
[사는이야기](#) | [시민](#) | [세대](#) | [지역](#) | [언론](#) | [오마이 배꼽](#)
[기자만들기](#) | [OhmyNews게시판](#) | [공개편집회의](#)

copyright 1999 - 2000 OhmyNews
mail to ohmynews

That site to
Share with You

OhmyNews

2001.1.8. 월요일

사회



사회	문화	정치	국제	교육	경제	스포츠	정보통신
----	----	----	----	----	----	-----	------

- 회원가입
- 기사쓰기
- 기사제보
- 기사검색
- 전체기사

이 기사를 메일로
이 기사를 프린트
이 기사에 관한 의견
이전 메뉴

쓰러졌던 단식농성자들 속속 복귀

12일째...여기는 명동성당 인권활동가 단식현장

공희정/노경진 기자 humanrights@sarangbang.or.kr



서울에 폭설에 내려진 가운데, 7일 밤 8시 농성단은 촛불집회를 열었다. 농성자들은 촛불과 자신의 몸을 비닐 한장으로 지켜야 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자

공동취재 : 공희정, 노경진, 서정민갑, 유해정, 정은성, 김가연, 심보선 기자

8일 오전10시30분 -쓰러졌던 농성자들 속속 복귀 -노경진 기자

하늘은 말끔히 개었다. 7일 내린 눈은 영상의 기온인데도 아직 녹지 않고 한쪽에 수북히 쌓여 있다. 그러나 단식농성단은 언제나처럼 같은 모습으로 명동성당 들머리에 앉아 있다.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서 폭설과 싸우며 힘겹게 자리를 지켜냈던 어제 모습은 찾기 힘들다.

12일째를 맞는 단식농성기간 동안 어제의 폭설은 농성단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다. 인권하루소식 이창조 편집장은 그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했다.

"정말 고생이었죠. 눈이 와도 다 녹으니까 옷이 젖는 걸 막기 위해 비닐로 몸을 감쌌습니다. 그래도 소용없더라고요. 또 세차게 내리는 눈이 얼굴을 때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눈을 피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었다. 농성단은 젖은 옷을 말리러 카톨릭 회관 안으로 들어갔다가 옷이 다 마르면 다시 나와 자리를 지켰다. 잠도 이전처럼 천막에서 잤다. 이들의 농성 의지에는 20년 만에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는 폭설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듯 싶다.

악화된 몸 상태로 농성을 그만뒀어야 했던 이들도 다시 명동성당을 찾았다. 고혈압과 심장동맥으로 지난 4일 병원에 실려간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 박래군 씨도 퇴원해서 어제 온종일 농성단의 일을 도왔다. 60세의 고령으로 기력이 쇠한 오영자 씨는 백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어제 밤 11시 다시 성당으로 나와 지금도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8일 오전 10시 현재 사회진보연대 인천지구 최석진 씨와 불교인권위원회의 조혜은 씨가 새로 가세하고, 자통협이 박유순 씨가 릴레이 단식 농성에 합류해 총 19명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내일로 단식 농성은 끝난다. 8일 낮 12시에 사무국장단 회의가 있고, 오후 2시에는 종교인들이 방문 '종교인들과 함께 하는 시민한마당(가제)'을 벌일 예정이다. 또 오후 7시에는 지난 6일 음악회를 진행했던 가수들이 다시 이곳을 찾아 두번째 문화제를 연다.

"8일 문화제는 단순히 공연 차원을 넘어 이번 농성의 정리 집회의 성격을 지닌다"고 한국민족음악인협회의 서정민갑 씨는 설명했다.

문화제에는 지난 6일 음악회에 참가했던 꽃다지, 조국과 청춘, 우리나라, 손병취 외에 박성환, 서기상, 희망새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희망새는 이번 공연을 위해 부산에서 올라온다. 사회자는 지난번과 같이 김정환 씨다.

한편, 인권공대위는 8일 예정된 김종권 대표, 이종걸, 정대철, 이상수 의원과의 만남을 위해 현재 민주당사를 방문중이다. 만남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7일 밤8시 - 폭설과 단식에 쓰러져도 농성은 계속된다 - 심보선 기자

지난 2일부터 단식농성을 해 온 오영자(60, 박선영 열사 어머니) 유가협 회원이 7일 오후 5시 백병원으로 후송됐다. 농성단의 강력한 만류에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때까지 여기서 죽겠다"며 단식을 계속해오던 오영자 어머니는 7일 박정기 유가협 회장 등이 찾아와 직접 백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박선영 열사 어머니는 지난 2일 "그냥 동조농성을 하기 위해 왔다"며 농성단 상황실장을 속인(?) 후 단식농성을 해오다가 지난 5일부터 링거액에 의지해 단식을 해왔다.

한편 7일 링거주사를 맞은 최재훈 농성단 상황실장, 지난 6일부터 링거주사를 맞은 유해정 씨, 단식농성 첫 날부터 계속 참가한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를 진찰한 인의협 우석균 조직국장은 "앞으로가 문제다.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최재훈 실장이나 유해정 씨는 오늘밤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은 7일 새벽부터 내리는 폭설에 잠시 위기를 맞았으나 곧 자리를 정리해 비닐을 뒤집어쓰고 우산을 받은 채 명동성당 돌머리 계단에서 연좌농성을 계속했다. 농성참가자들이 갑자기 늘어난 관계로 바람막이용으로 쳐놓은 텐트에서 교대로 눈을 피하는 정도. 다만 내린 눈을 피하느라고 비닐 등을 뒤집어썼지만 옷이 젖어 감기에 걸릴 것이 우려된다.

오늘(8일)은 5일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민주당 김종권 대표를 만나러 갔을 때 민주당 이종걸 인권위원장이 책임지고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한 날이다.

7일 저녁 8시 1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6일부터 24시간 단식농성에 참가한 장기수를 대표한 김영승 씨는 "모두 60-70대 노인들이지만 첫날부터 참가하고 싶었다"며 "돌아가서도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혀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영승 씨는 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참가했다가 중간에 같은 단체 동료들과 교대 후 다시 단식농성에 참가한 울산인권운동연대 김석한 씨는 "투쟁성과가 크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국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반시민, 학생, 사회단체 회원 등 단식농성에 참가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지난 5일 김종현(시민) 씨가 단식농성에 참가한 데 이어 6일에는 정영석(서울대생) 씨, 고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고대생 10명, 김영승 씨 등 장기수 13명이 단식농성에 참가했다.

또 7일에는 조혜은(불교인권위 간사), 최석진(사회진보연대 회원) 씨 등이 단식농성에 참가했다. 지난 5일부터 민연련과 진보넷 활동가들도 릴레이 단식, 한끼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일반시민과 대학생들이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 속보를 제작하는 곳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항의할 곳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달라"는 전화와 메일이 꾸준히 오고 있다.



농성단 참가자들이 눈발이 가늘어지자 8시 집회에 앞서 명동성당 들머리의 눈을 치우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자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에서도 명동성당 들머리 앞 노상에서의 단식농성은 계속됐다. © 오마이뉴스 공희정 기자

<사진> 폭설과 싸우는 농성단들의 모습 - 정은성 기자
 <사진> 폭설과 싸우는 농성단들의 모습 2 - 정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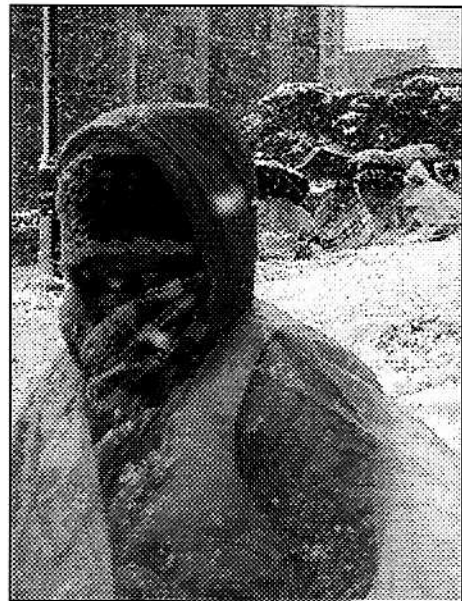
1월 7일 낮 12시 30분 : 폭설속에도 단식농성은 계속된다 - 공희정/김종현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 입법을 위한 인권운동가 단식 농성단이 농성을 돌입한 이후 가장 큰 시련이 닥쳤다.

명동성당의 반대로 인하여 천막을 칠 수 없어 노상에서 연좌시위를 벌인지 벌써 11일. 날마다 수은주는 올해 최저 온도를 경신하더니 이제는 올해 최고의 폭설이 찾아온 것.

기상청은 서울에 대설 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10시 현재까지 서울에만 7.5cm의 눈이 내렸다고 밝히고, 8일 새벽까지 5-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동안의 농성뿐만 아니라 오늘 밤과 내일 새벽까지 농성단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성단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3대 개혁 입법을 위한 단식단의 의지는 강추위 속에서 11일간 노상 단식농성을 진행함으로써 입증되었다"면서 "농성이 11일째 진행되는 동안 3명의 단식단 일원이 탈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단식단의 숫자는 계속 증가해 어제 6일 저녁에는 44명으로 늘어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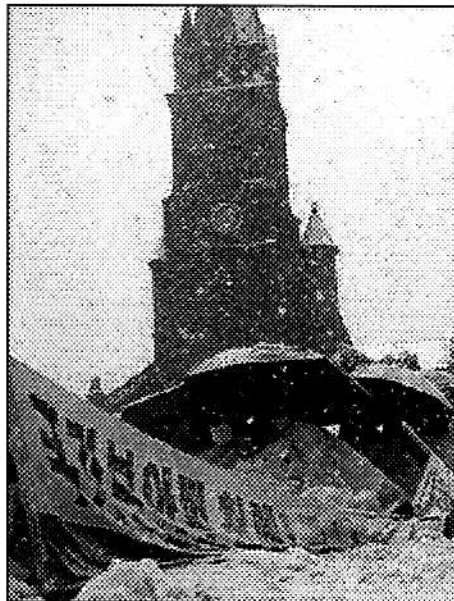
한 여성 농성단 일원의 뒤로 노상에 앉아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들에게 두려운 것은 추위와 배고픔이라는 적보다 국가보안법이 존치되고 있다는

다"고 밝혔다.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망을 일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공회정 기자

이번 눈으로 인해 단식단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7일 새벽 5시경부터 쏟아져 내리는 폭설로 인해 노상에서 침낭과 비닐에 의존하며 잠이 들었던 사람들은 긴급하게 서울 가톨릭대학생연합 사무실로 피신했다.

그러나 농성단들은 오전 9시부터 노상 단식농성을 강행했다. 서준식 대표는 "오랜 단식 농성기간으로 지쳐있는 농성단과 연로한 장기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을 위해 노상에서의 농성을 잠시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히려 장기수 분들은 '과거에 더 많은 눈과 추위 속에서도 지냈다'며 '이 정도 눈이야'라고 말해 단식농성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수 노인들은 주일 명동성당을 찾을 신자들을 위해 눈까지 치워

현재 농성단은 명동성당 들머리에 앉아서 몇몇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서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농성단이 눈을 피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몇 개의 우산과 비닐이 전부다.

몇몇씩 돌아가면서 임시로 설치된 텐트에서 잠시 몸을 녹이고는 있지만 많은 눈으로 옷이 젖어 들어가 단식농성단의 어려움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 오마이뉴스 공회정 기자

이런 상황에서도 장기수 분들은 주일을 맞아 명동성당에 미사를 보러

오는 신자들을 위해 빗자루를 들고 명동성당 들머리 곳곳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1월 7일 낮 12시 : 단식농성 최대의 위기 - 정은성기자

3대 개혁법안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1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단식 농성중 최대의 위기가 왔다.

10일째 되던 날 저녁은 촛불음악회가 진행되었고, 학생들과 장기수 어른들이 함께 밤을 지새 주어서 마음이 든든했지만, 7일 새벽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자 가지고 있던 담요도 눈에 젖을까봐 덮지 못하고 우산하나 들고 여전히 노상에 앉아 단식 농성 11일째를 보내고 있다.

이어진 기사- 줄잇는 농성단과 촛불시위

2001/01/04 오후 1:5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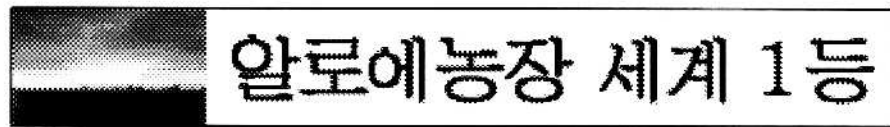
기사제공 기관 :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단 © 2001 OhmyNews

[공회정/노경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이어진 다음 기사](#)

좋은 기사! 나도 원고료를 주고 싶다!

아래 광고를 클릭해 주세요. 1회 클릭할 때마다 50원의 보너스 원고료가 기사에게 지급됩니다. 단 생나무기사는 광고를 클릭해도 보너스 원고료에 합산되지 않습니다.(한 기사당 독자별 1회 클릭에 한함)



▶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 107. 좋은 하루... 어제!!
국회의원, 2001/01/08 오후 2:00:16
- 106. 약은 약사에게.....
백두산1호, 2001/01/08 오후 1:52:39
- 105. 약삭빠른 국민성
killer, 2001/01/08 오후 1:38:40

[전체 독자 의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의견 쓰기](#)

[◀ back](#)

[top ▲](#)

[사회](#) | [문화](#) | [정치](#) | [국제](#) | [교육](#) | [경제](#) | [스포츠](#) | [정보](#)
[사는이야기](#) | [시민](#) | [세대](#) | [지역](#) | [연론](#) | [오마이 배꼽](#)
[기자만들기](#) | [OhmyNews게시판](#) | [공개편집회의](#)

copyright 1999 - 2000 OhmyNews
 mail to ohmynews

13일간의 노상 단식농성을 마치며

- 우리는 계속 얼음을 깨는 아침을 맞을 것이다 -

개혁에 대한 염원과 뜨거운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13일이였다. 우리는 2000년 12월 28일에 시작한 노상 단식농성을 해가 바뀐 오늘 1월 9일로 접는다. 3대 개혁입법의 희망을 파문을 수 없었기에 결행한 우리의 투쟁은 영하 20도의 추위와 20년만의 폭설을 뚫고 연말연시의 동면을 깨울 수 있었다. 침구에 맺힌 얼음을 깨는 것으로 시작한 하루하루는 수많은 시민들과 사회단체 동지들의 발길 속에서 태워졌고, 정치권에 짓이겨진 3대 개혁입법을 향한 의지는 새순을 틔울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허기와 추위에 상한 우리의 몸뚱이보다 더 아픈 것은 국민의 심정임을 새삼 절감한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절망감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 안에 3개 개혁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론을 확정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허울좋은 '위로방문'차 농성장을 찾은 여야 의원들은 '당론을 가져오기 전에는 올 생각 말라'는 단식자들의 반발을 수긍할 줄 몰랐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단식 농성 정리는 새로운 싸움의 신호탄일 뿐이다. 개혁 '지체'가 아니라 개혁의 '시작' 조차 구경 못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충공세를 멈출 수 없다. 3대 개혁입법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는 농성기간 중에 그랬듯이 뽕뽕 얼어붙은 얼음을 깨는 결연한 아침을 계속 맞을 것이다. 결단을 모르는 김대중 대통령과 행동을 모르는 민주당을 치는 일에 우리 인권활동가 뿐 아니라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망치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의마저 봉쇄하며 무분별한 반대만 일삼는 야당도 국민의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3대 개혁법안,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중 어느 하나만 통과시키려는 그 어떤 의도도 단연코 거부한다. 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 전향적인 태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우리는 경계를 늦출 수 없다. 결코 따로 취급될 수 없는 이들 3개 법안

의 제정 및 폐지에 대해 어느 하나로 생색내려는 시도는 다른 사안을 사장시켜 결국 더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개혁입법에 대한 요구에 귀를 막고 정쟁의 식탁을 떠날 줄 모르는 정치인들이여, 똑똑히 들어라. 국민들의 허기는 그대들에 대한 분노로 뭉치고 있다. 그대들이 목구멍에 쳐박고 있는 거짓과 태만과 배반은 내장 속에서 썩어 들어가 결국 국민들의 수술 집도 내지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지하고 3대 개혁입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 김대중 대통령은 3대 개혁입법에 대한 결단을 내려라!
- 여야는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 2대 현안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나서라!
- 여야는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의 제정에 즉각 나서라!
- 법무부(검찰)는 인권단체를 우롱하지 말고, 개혁입법 논의에서 손을 떼라!

2001년 1월 9일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 농성단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동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홈페이지: <http://www.sarangbang.or.kr> E-mail: <rights@chollian.net>, <humanrights@sarangbang.or.kr>

수 신 : 각 인권단체 대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노동인권회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인권지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가나다순》)

참 조 : 각 단체 사무국장 또는 집행책임자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담당: 정책기획실장 박래군)

발 신 일 : 2000년 12월 12일

제 목 : 인권단체 연합 농성 기획안 검토 요청

총 매 수 4매(표지 포함)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귀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오늘 자 한겨레신문과 문화일보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 개정안도(물론 폐지는 더더욱 언급조차 안됨)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국회 상정마저도 연내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내의 당론조차도 정해지지 않고 있고, 다른 당들도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려는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국회에서조차 이 법률안들이 상정되어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아예 이 법률의 제정과 폐지는 물 건너갈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지난 12월 8일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으로 입장을 표명하였고, 그때 모인 단체들끼리 의논한대로 비상하게 행동에 돌입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일 저녁 5개 인권단체들이 의논하였고, 국가인권기구공대위와 의논한 결과 12일부터 인권단체들이 농성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 실종될 지도 모르는 두 법률안에 대한 논의에서 큰 분수령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

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오후 전국의 20개 단체를 대상으로 전화로 연락한 결과 농성에 들어가는 것에 공동행동을 취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이 농성 기획안을 제출합니다.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3일 오전 10시에는 인권단체 연합 농성과 관련한 준비회의를 각 단체 집행책임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오전 10시까지 천주교인권위원회(명동성당 옆 가톨릭회관 3층, 전화 777-0643)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최종적으로 12일 오후 8시 국가인권기구공대위와 의견 조정 회의 결과 농성 돌입 시점이 하루 정도 늦춰진다고 해도 집행책임자 준비회의는 그대로 갖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별다른 통보가 없는 한 12일(수) 오후 2시부터 명동성당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고 각 단체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단체들이 결연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정부와 여당, 정치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늦은 행동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런 노력이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없을 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권단체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인권단체 연합 농성 기획안

1. 취지

- 현재 인권 관련 주요 개혁법안들이 실종될 위기에 있음.
- 인권단체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김대정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여야 할 비상한 상황임.
- 현재 각 연대기구별로 분산, 고립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어서 인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근거로 통일적인 요구와 투쟁을 전개하도록 함.
- 특히나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인권단체들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임.

2. 주장;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의 연내 해결을 위한 인권단체 연합 농성

(1)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현재 민주당에서 개정론에 대한 최종안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개정이라도 의미 있기 위해서는 7조의 완전 삭제는 이뤄져야만 한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등을 최대한 활용한 인권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2)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법 설치법의 제정

독립적인 국가기구와 민간특수법인 사이에서 아직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고, 법사위원들은 다수가 민간기구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단체안에서 주장하듯이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되고 아울러 실효성도 갖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주장한다.

3. 농성 시기

(1) 1안: 2박3일 또는 3박 4일 집중투쟁

- 장기적인 농성이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다시 농성에 돌입하더라도 단기일에 집중적으로 농성을 벌이는 것이 좋다는 의견

(2) 2안: 무기한 투쟁

- 현재의 정치 일정이 매우 유동적이고, 한 번의 이슈 파이팅이나 이벤트로서가 아니라 인권단체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하므로 무기한 농성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

4. 농성 방법

지금껏 논의된 바를 정리하면,

-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것은 간히는 듯한 느낌이며, 효과가 없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명동성당 농성을 거점으로 확보하고, 이에 국회를 압박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전술을 결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다수임.

- 일부에서는 단식농성을 주장하고, 또, 일부에서는 농성을 하더라도 낮 시간 동안에는 농성 대오가 명동성당 계단에 나와 대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 각 단체 대표 및 활동가 적극 결합; 평상 농성대오 20명 유지 목표, 각 단체 집중일을 정해서 그날만은 책임지는 자세 필요. 농성단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5. 농성 일정 및 프로그램(13일 농성 돌입을 가정하여)

- 13일 오전 10시 농성 준비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농성 기조와 방법, 성명서, 기자회견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 13일 오후 2시 농성 돌입 기자회견;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인권단체 대표들과 농성단이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단체들이 농성에 돌입하는 이유를 대내외에 공포하고, 계획을 발표한다.

- 13일 오후 6시 선전전 및 집회

- 13일 밤: 활동가 소토론회-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 현황과 대응 방안

- 14일 오전 10시; 국회 관련 비상식적인 전술

- 14일 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의 정치권 논의 현황과 대응 방안

- 15일 오후 2시; 국회 앞 집회

* 기본 프로그램

오전 8시부터 9시; 출근 시간 선전전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점심 시간 선전전

저녁 6시부터 7시; 선전전

매일 밤 평가회 및 소토론회 개최

* 그외

- 시민 홍보전

- 국제 연대 : 지지 호소문을 농성 기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문을 띄운다.
- 매일 속보 발행
- 공개 질의서 또는 정치인 면담 : 대통령 귀국 후 가계 인사와의 간담회가 잡혀 있음. 15일 종교계 인사와 오찬 모임 예정됨.
- 거리 행진 : 피켓 시위나 인간띠잇기?
- 소규모 대중적인 문화 공연 등

6. 농성 준비

- 천막(국보폐지국민연대 천막 활용), 난방기구, 담요, 현수막, 비닐, 바닥 깔개, 비닐, 수도·발전 시설, 음향 시설, 기본약품, 생수, 소금 등
- 기자회견문, 기자 연락
- 기타

7. 재정

- 각 단체당 10만원씩(지난번 성명 발표 때 미납한 단체 11만원)

8. 기타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동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홈페이지: <http://www.sarangbang.or.kr> E-mail: <rights@chollian.net>, <humanrights@sarangbang.or.kr>

수 신 : 각 인권단체 대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노동인권회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인권지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가나다순》)

참 조 : 각 단체 사무국장 또는 집행책임자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 박래군

발 신 일 : 2000년 12월 14일

제 목 : 인권단체 연합 농성 수정 제안

총 매 수 : 5매(표지 포함)

1. 최근 인권단체들의 연합 투쟁에 관한 많은 논의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어제 13일만 해도 오전과 저녁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4시간씩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동시에 이후의 투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요약해서 말하자면, 일단 13일 오전 회의에서는 이날 오후 예정되었던 민주당사 관련 투쟁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14일부터 매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모여 집회를 가진 뒤 민주당사 진격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3일 오후 투쟁이 무위로 끝나면서 14일부터의 행동계획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이에 따라 14일 오후 8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다시 모여 이후 행동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4일 오후 2시부터 명동성당 단식농성을 조직하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단식대오를 확인한 결과 확실한 경우는 7명밖에 안되어서 다시 14일 오전 11시까지 단식자들을 확인한 뒤 불가능할 경우 18일 오전부터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최종적으로 14일 오전 11시까지 각 단체에 확인한 결과 단식조가 전체 10명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고, 18일부터 할 경우에는 단식조가 늘어날 수 있다는 희망 담긴 의견들에 따라 오늘부터 들어가는 농성은 취소하고, 제대로 준비하여 18일부터 본격적인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하여 특별한 상황의 반전을 위한 조치가 있다면 다시 우보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시기만은 놓치지 말고 인권단체들의 의지를 표현하였으면 합니다. 아래 회의결과와 준비에 대해서 정리를 하오니 각 단체는 꼭 이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나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 박래군(사무실: 02-741-5363, 핸드폰: 016-729-5363)

인권단체 집행책임자 긴급 회의 회의결과

일시: 2000년 12월 13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참석: 조혜은(불교인권위원회)/최준석(민변)/안원영(천주교인권위원회)/차미경, 박재석(국제민주연대)/손종필(유가협)/임태훈(동인련)/박래군, 심태섭(인권운동사랑방) 7개 단체에서 참석

1. 13일 오후 투쟁 무산에 대한 경과 설명

- 13일 민주당사 점거투쟁은 점거투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현장의 파악에 따라 신속히 철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투쟁은 전면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함.

*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구두로 설명드릴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함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애초 13일 오후 투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여당을 압박하는 투쟁으로 유효할 것이며, 때문에 민주당사 진격투쟁을 기본으로 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의 투쟁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을 인정함.

2. 인권단체 연합 투쟁의 목표와 의의에 대해

- 국가보안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에 집중해서 이들 문제와 관련한 인권단체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함.

- 고립분산적이고 무기력하게 진행되는 투쟁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 역할을

함.

- 13일 투쟁의 무산 이후 우리 대오를 다시 추스리는 데 기여함.

3. 단식농성은 필요한가?

-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긴박하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투쟁의 시기라는 데 일치된 의견이었음. 이대로 가면 국보나 국가인권위가 실종될 처지에 있는 고로 김대중의 귀국에 맞춘 시기에 인권단체들의 집단적인 투쟁은 유효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투쟁, 특히 명동성당 투쟁은 고립적이거나 자족적인 투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투쟁 방법을 모색함.

- 이에 따라 민주당사 점검투쟁이나 광화문 앞 시위 등을 모색하였으나, 그런 투쟁들이 지속성을 갖춘 결연한 투쟁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과 인권단체의 격에 맞는 투쟁방법이라는데 회의적이었고, 이런 투쟁들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봄.

- 결국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명동성당의 단식농성은 거의 유일한 현 시기 투쟁 방법이며, 이를 통해 처절할 정도로 결연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 대오 내부의 무기력한 패배주의에 경종을 울리면서 투쟁의 구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합의함.

4. 최종적인 결론

- 투쟁은 인권단체의 1차적인 책임인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국가인권위의 설치에 집중기로 함.

* 일부 18개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제단체들을 추동함으로써 투쟁의 동력을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방안이며, 투쟁의 타점을 흐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폐기됨.

- 뾰족한 투쟁 방법이 없는 한 명동성당에서의 단식투쟁 대오를 기본으로 하고, 매일 여기에 단체별 책임을 정해 결합시킴. 여기에 민주당사 타격 투쟁과 방법을 결합시키고, 매일 오후 6시에는 명동성당 집회로 모아내는 프로그램 가동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를 계기로 상층을 움직여 협상력을 높이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 이를 위해 14일 오후 2시부터 당장 단식투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점검한 결과 사랑방과 국제민주연대가 각 3명씩, 천주교인권위가 1명 결합할 수 있는 이외에는 이번 주 단식농성 돌입은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됨. 이에 따라 14일 오전 11시까지 이를 각 단체별로 확인하여 최소한 여러 단체가 10명 이상의 단식조를 운영할 수 있을 때는 오후 2시부터 단식농성을 들어가기로 함. 그러나, 확인 결과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18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

하기로 함.

인권 2대 현안 연내 해결을 위한 인권단체 연합 농성 계획 제안

2000. 12. 14. 박래균

1. 우리의 주장

- 국가보안법의 폐지.

최소한 7조3항(이적단체 구성, 가입)을 포함한 7조의 완전 삭제 정도를 담은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의원입법으로 제청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위상과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로

- 이들 두 인권 관련법의 연내 폐지 또는 제정을 촉구

2. 투쟁기간

- 18일(월) 오전 11시부터 23일(토) 낮 12시(정오)까지

3. 투쟁의 방법

- 단식농성을 중심으로 별도의 투쟁 방식을 결합시킨다. 단식농성은 이전의 다른 팀의 농성같이 단식을 하면서 개인의 일정을 보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단식농성조는 기본적으로 외부 출입이 금지되어야 하며, 낮 시간 동안에는 들머리 계단에 연좌해야 한다.(1주일 정도) 물과 소금 외에는 일체 입에 대지 않는다(담배도 자제한다).

- 단식농성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를 알릴 홍보, 단체별, 개인별 동조자들을 결합시킬 조직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 투쟁은 민주당이나 국회를 집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투쟁이 동시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 투쟁의 효과에 대해서는 각 단체 대표들이 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4. 농성 프로그램

(1) 선전전; 매일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민 선전전을 전개하고, 하루 종일 들머리 계단에서 연좌하여 결연한 투쟁을 의지를 보여줌.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과 대자보 등이 준비되어야 함. 사이버 항의를 위한 컴퓨터를 설

치하면 더욱 좋을 것임.

(2) 집회; 매일 오후 6시 집회를 상정하여 대중들과 함께 하도록 하며, 집회는 촛불시위와 같은 형태로 명동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시도함.

(3) 평가 및 내부 토론회; 평가회는 매일 가지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며, 내부 토론회는 국가보안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의 현황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가짐.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과 관련된 여러 토론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비디오 시청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임.

(4) 농성 이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농성 중에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함. 민주당사 점거 단식도 꾀할 수 있음.

5.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1) 15일까지: 각 단체 단식농성에 대한 논의 및 단식 참여 결의

각 단체는 이 투쟁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에 결함하는데 단식투쟁에 참가할 인원은 각 단체당 무조건 1인을 결정하고, 단식농성을 지원할 인원을 결정하여 이를 15일 오후 6시까지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에게 통보함.

(2) 단식농성 선포식: 12월 18일(월) 오전 11시에는 모든 인권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이 명동성당에 총집결함.

(3) 각 단체 준비물 및 준비사항은 15일(금) 다시 통보하고, 농성 준비회의를 오는 16일(토) 오후쯤에 가질 것을 제안함. 하나의 방안은 동성애자들의 일일호프가 진행되는 비즈니스 호프에서 토요일 오후 7시에 갖는 것이 좋을 듯함. 준비 모임도 하고, 일일호프에도 참가하고,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임.

(끝)

인권활동가 소위원회

임시 연락)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 박래군(전화: 741-5363, 016-729-5363)

수 신 : 각 인권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노동인권회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인권지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가나다순>)

참 조 : 각 단체 집행책임자 및 대외협력 담당자

발 신 : 인권활동가 소위원회(연락 담당: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

제 목 : 소위원회 회의 결과 및 인권단체 연말연시 투쟁 제안

발신일 : 2000년 12월 21일

총매수 : 매(표지 포함)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2. 지난 19일 안타깝게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을 중단한 뒤 소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후 연말연시 투쟁을 준비하기로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소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이후 연말연시 투쟁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귀 단체에 이 회의결과를 알려드리면서 연말연시 투쟁을 제안하오니 이에 대해 각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정은 명동성당 단식농성을 준비할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며 여전히 인권활동가들의 선도적인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이대로 보낼 수 없으며,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누구든 동의를 하면서도 투쟁의 구심점을 형성하는 데는 주저하는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금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결연한 단식농성을 통해서 이 투쟁을 불 지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제안합니다.

다 음

인권활동가 연합 연말연시 투쟁을 위한 인권단체 집행책임자 점검회의

- 일시 : 2000년 12월 26일(화) 오후 5시
-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안건 : 1. 소위원회 제안 사항에 대한 각 단체 논의 보고
- 2. 각 연대기구와의 공동행동 논의에 대한 보고
- 3. 인권활동가 연말연시 투쟁 계획 논의와 확정
- 4. 기타

* 지역의 단체들은 회의에 결함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인권활동가 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일시: 2000년 12월 21일(목) 낮 12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참석: 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박래군 정책기획실장,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사무국장, 동인련 임태훈 대표, 천주교인권위 안원영 간사

1. 12월 19일 단식농성 중단에 대한 정리

- 노동자들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초점을 흐를 수 없었음.
- 민주당의 내분, 당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란 점이 감안되었음.
- 이후 연말연시에 보다 크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이를 언론사,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에 전달함.

2.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연말연시 투쟁에 대한 동향 파악

- 국보폐지국민연대는 연말연시 투쟁을 지속하기로 하고 우선 국보법 개정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의원들의 지구당을 항의방문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12월 31일, 1월 1일 집회를 갖고, 1월 7일 전국 동시다발집회를 기획하고 있음. 인권단체들이 행동에 들어갈 경우 선전전을 벌이며, 무조건적인 결함을 하겠다는 의사임.
- 국가인권기구공대위는 공식적으로는 22일(금) 회의를 통해 연말연시 투쟁을 계획할 것으로 보임. 공대위에서는 민주당사 점거투쟁 2차 시도를 고려중이고, 보다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투쟁을 고민중임. 광노현 교수가 박원순 변호사와 논의중임.
-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개혁연대(준)은 연말연시 투쟁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간사단체(참여연대등)에 위임해 놓은 상황임. 개혁연대는 투쟁이 필요한 시점에서 요청이 있을 시 움직인다는 정도의 답변을 들었음.
- 노동계의 투쟁은 한통노조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22일부터 금융노련이 파업에 돌입하게 됨. 또한, 대우자동차 문제가 심상찮은 상황임. 이에 따라 노동계는 연말연시에 지속적인 투쟁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우리의 투쟁에 결합할 상황은 아님.
- 결론적으로 인권단체들이 행동에 돌입하면 다른 단위들은 이에 결합하여 연말연시 투쟁을 전개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 선도적인 인권단체들의 투쟁을 기대함.

3. 연말연시 투쟁 계획 논의

- 전제
 - ① 1월 9일까지 최대한의 동력을 조직하고, 단절 없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예산안 문제로 국회가 계속 파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1월 9일도 연장될 수 있을 것임)
 - ② 시민단체, 노동조합들과 공동투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즉, 인권현안에 대한 인권단체의 투쟁을 지지하고,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걸고 함께 투쟁하도록 조직할 수 있다.
 - ③ 일단 각 단위는 연말연시를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는 상태임.